



■ 초유의 질병 예방 중요성

- 초유는 통상 분만 후 24시간 내로 분비되는 젖을 의미하지만, 태어난 후 최소 6시간 이내에 초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.
- 초유 안에는 모돈이 그동안에 백신 및 자연감염에 의해 경험했던 질병 병원체들에 대한 기억인 항체(IgG, IgM, IgA)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.
- 자돈은 초유 내의 항체를 통해서 자신의 능동면역 기전이 형성되기 이전(출생 14일)에 질병 병원체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.
- 돼지는 초유 중 면역글로불린(IgG) 흡수능력이 생후 0~3시간에는 100%, 3~9시간에는 50%로, 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초유를 섭취해야 합니다.

■ 초유를 잘 먹이는 방법

- 초유를 만드는 것은 임신모돈인 만큼 고품질의 많은 양의 초유를 생성할 수 있도록 임신모돈 체형 및 적절한 사료관리가 중요합니다.
- 초유 섭취를 늘리기 위한 방법
 - ① 간호 분만이 가능하면 자돈이 초유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제공
 - ② 출생 후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양수를 닦아 준 후 보온등 밑에 10~20분간 유지하고 제대출혈을 막기 위해 실로 묶고 위생적으로 잘라 줌
 - ③ 출생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
 - ④ 분만복당 모든 자돈들이 골고루 초유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관리
- 초유 섭취를 방해하는 장애물
 - ① 자돈들이 접근 가능한 노출된 젖꼭지의 수가 두수에 비해서 적은 경우
 - ② 돼지들이 출생 시의 힘과 크기가 다른 경우
 - ③ 일부의 허약하거나 작은 자돈들이 포유반응(젖꼭지를 물고 빠는 능력)이 약한 경우
 - ④ 초유의 품질 즉, 면역 항체의 수준이 매 시간마다 급격히 감소함
- 신생자돈의 분리 포유 방법
 - ① 초유를 충분히 섭취한 크고 힘센 자돈들을 2시간 정도 보온상자에 30분 정도 격리하여 나머지 자돈들이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
 - ② 분할 포유는 24시간 내에 2~3회를 반복하여 실시